

# 30년 방치됐던 강진 폐교부지 ‘청년 스마트팜’ 대변신

서초 영파분교, 9250㎡ 부지 스마트 온실 3개동·리빙랩 갖춰  
45세 미만 창업농에 3년 간 월 임대료 1만원 ...영농 정착 지원

30여 년간 방치됐던 폐교부지가 첨단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재탄생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을 영파리 위치한 옛 강진 서초등학교 영파분교 부지를 '전남 YOUNG농(영농) 스마트단지'로 조성해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임대단지 구축을 완료했다.  
해당 부지는 1991년 폐교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돼지만, 강진군이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 2024년 전남도 영농스마트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재생 사업이 추진됐다.

전남 YOUNG농 스마트단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청년농 스마트팜 거점단지로, 9250㎡ 부지에 스마트 온실 3개동(4885㎡)과 리빙랩 등 관련 기반시설을 갖췄다.  
또 복합환경제어시스템(ICT), 자동 관수·양액 시스템 등 최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집약시켜 원예 특용작물 중심의 고소득 작물 재배 환경을 조성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단지는 ▲토마토 재배용 4연동 비닐온실 1동 ▲딸기 재배용 2연동 비닐온실 2동으로 구성돼 있다.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1만원에 3년간 스마트팜 영농시설을 임대, 파격적인 임대료로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절감시켜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모집에서 토마토 재배 농가 1명과 딸기 재배 농가 2명 등 총 3명의 청년농이 입주자로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운영로 강진군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청년농과 지역 농업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청년농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전남영농스마트팜 조성 하우스 내부 모습.

〈강진군 제공〉

## 시설 좋은 ‘장성호 체육공원’ 전지훈련 명소 부상

4만 9800㎡ 부지 축구·야구장 등  
원주교 야구팀, 다음 달까지 캠프

장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장성호 일원이 스포츠 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장성 최초로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을 개최하며 조성한 장성호 체육공원에 체육인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4만 9800㎡ 부지에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사위장 등을 갖추고 있는 장성호체육공원은 잘 관리된 시설과 맑은 공기 등 탁월한 환경을 갖춰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선 야구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대로 된 경력을 갖춘 경기장을 찾기 어려운 데다, 꾸준히 상승 중인 국내 야구 인기 덕분에이다.  
지난 6일부터는 원주고등학교 야구팀 30명이 장성호 체육공원에 동계 전지훈련 캠프를 차렸다. 선수단은 다음 달 27일까지 장성에 머물며 훈련에 매진할 예정이다.  
군은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등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군은 이번 원주고 선수단 유치로 인한 경제 효과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난 27일 원주교 야구 선수단이 동계 전지훈련 중인 장성호 체육공원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가 1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지난 27일 훈련장을 방문해 원주고등학교 선수들을 격려한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국 단위 조정

경기가 열리는 장성호와 '전지훈련 최적지' 장성호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스포츠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과 노력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지역상품권 환급

다음 달부터 상생페이백 시행...임시 상품권 지급 후 4월부터 전환

담양군이 2월부터 대표 관광지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전액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관광객의 발길을 관내 소비로 연결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다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광객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 시 납부한 입장료 전액을 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어린이·군인 1000원이며 환급받은 상품권은 메타랜드 내 상가와 담양읍 중앙로 일대 상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담양사랑상품권(1000원권)이 현재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작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약 2개월간은 담양사랑상품권 대신 '임시 환급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방문이 자연스럽게 관내 소비로 이어지고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운영 상황과 이용객 반응을 분석해 오는 4월부터 환급 수단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고 사용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담양군은 2025년 대나무축제 기간 메타세쿼이아랜드와 축죽원 입장료 환급 상품권을 발행해 약 452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담양읍 중앙로와 담양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만원의 담양사랑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운영해 연말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환급제도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나주시, 집중호우 선제 대응 1500곳 맨홀 개량

남평읍·성북동 등 7억원 투입  
3월 착공...단계별 사업 추진

나주시가 집중호우와 시설 노후화로 발생하는 맨홀 이탈·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단발성 정비가 아닌, 연차별·권역별로 위험 요소를 줄여가는 상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해 국비를 확보해 혁신도시 일원 550여곳을 정비한 결과 현장 안전성이 크게 개선돼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남평읍, 성북동 등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정비를 추진한다.  
총 7억원을 투입해 1500여곳의 노후 맨홀을 개량하고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2월 현장 조사와 설계를 거쳐 3월 착공에 들어가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현장 모습.

여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의 안전은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지켜야 할 행정의 책무"라며

"눈에 잘 띄지 않는 기반 시설까지 꼼꼼히 관리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화순 폐광 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 지원

150억원 규모 제조·관광레저업 기업 등...다음 달 19일까지 신청

화순군이 '202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확장·이전한 제조업, 광업(석탄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업종 관련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역 내 모든 농공단지는 진흥지구 포함돼 있어 입주 예정 기업도 융자금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총 150억원이다. 시설

자금 30억원 한도에 5년 거치·5년 균분 상환, 운영 자금은 10억원 한도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 금리(올 1분기 1.75%)가 적용된다.  
신청 기한은 2월1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춰 화순군 지역경제과 산단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사업 3년 연속 선정

전남 지자체 유일...양육 코칭·가족 갈등 완화 등 맞춤 서비스

나주시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 사업' 수행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전남에서 나주시가 유일하다.  
이 사업은 학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이라도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족 갈등 완화, 양육 코칭, 심리·정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주시는 2024년 시범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한 후 3년 연속 선정되며 아동 보호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

지난 2020년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과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조사와 사례관리를 추진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평가 '우수상', 2024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한 성과를 거뒀다.  
나주시 관계자는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고 가정 기능 회복을 통해 근본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함평 청년 커플 결혼 축하금 3년간 600만원

부부 중 1명 주소 두고 거주해야...읍·면사무소서 신청

함평군이 결혼하는 청년 부부에게 축하금으로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함평군은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부부에 2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전남형 결혼축하금에, 함평군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해 3년 간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49세 청년부부이며, 부부 중 1인(신청자)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도 결혼비자 발급

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과 거주 요건 또한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남 아이톡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2·3년차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혼인 유지 여부 등 자격요건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지급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결혼축하금이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부부의 결혼이 늘어나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화순팜’ 지난해 매출 61억원 ‘목표 초과’

지역 화폐 간편 결제·e-선물카드 등 도입 효과

화순군의 자체 공공 소품물인 '화순팜(사진)'이 지난해 61억8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목표인 50억원보다 11억 800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화순군은 지난해부터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맞춤형 유통채널 구축과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했다. 지역 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 간편 결제와 화순팜 e-선물카드 등을 도입해 지역화폐와 디지털 소비가 연계되도록 했다.  
올해는 연 매출 70억원 달성을 목표로 신규 판로 개척과 온라인 유통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민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군민이 우리 농산물을 자랑스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